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인생은
일치를 향한
모험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 현 후 3주 일 】

인도 1부 : 이재훈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신년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결단은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금 말씀 속에서 묻고, 그 길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설 명절인데도, 친지들에게 그리운 마음을 전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향민들, 이런저런 어려운 처지 때문에 고향을 방문할 수 없는 이들, 먼저 떠나보낸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안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들의 푸근한 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 43:18~19 인도자
- ▲ 교 독 문 12. 시19편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안홍숙 장로
- 2부 응 답 송 찬양대
- 2부 찬 양 200.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다 함께
- ▲ 성경봉독 신 28:9-14 1부: 인도자/2부: 장병준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 독 자
다 합 께

찬 양 I. 이제는 내가 없고 마중물찬양대
II. 살아계신 주 청파찬양대

말 씬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449. 예수 따라가며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
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진심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실
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따라 걸으며 하
늘의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함 께 : 아멘.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
다. 하나님의 명령을 성심껏 지키고, 그 어느 쪽으로라도 벗어
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복을
나누어 주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쉽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자비로우신 주님 慈愛之主

- 시편 121편에 대한 오경웅의 해석과 송대선 목사의 해설

舉日向青山 悠然望天顏 偉哉造物主 吾心所仰攀
거목향청산 유연망천안 위재조물주 오심소앙반
有主作金湯 小子復何患 爾立主扶持 足跟誰能移
유주작금탕 소자부하환 이립주부지 족근수능이
爾眠主守護 眷爾如嬌兒 佑爾無朝暮 更比慈母慈
이면주수호 권이여교아 우이무조모 갱비자모자
慈母有時倦 爾主永不睡 朝日不爾害 宵月不爾崇
자모유시권 이주영불수 조일불이해 소월불이수
行藏勿離主 出入百無忌 靈哉主大德 慈恩永不匱
행장물리주 출입백무기 영재주대덕 자은영불궤

푸른 산 향해 눈을 돌리나니 주님의 도우심 그리워하노라
만물 지으신 야훼 위대하셔라 내 영혼 우러러 사모하나이다
주께서 굳건한 요새되시니 어리석은 인생이나 무엇을 근심하라
주께서 든든히 잡아주시나니 뉘 있어 네 발걸음 뒤흔들 수 있으랴
너 잠들 때조차 야훼 지켜주시니 사랑스러운 아이처럼 돌봐주시네
밤낮없이 너를 도우시나니 자애로운 어미보다 더하시도다
자애로운 어미라도 때론 지치나 네 하느님 졸지도 아니하시네
낮의 해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에게 시비걸지 못하리라
나아가든 멈추든 주 함께 하시니 나거나 들거나 아무 꺼림 없으리라
주님의 크신 덕 신령하여라 자비로운 그 은혜 영원하도다

순례는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여정을 주도하시며 끝내 이 길의 목적이 되시는 하느님을 점점 더 깊이 담아내는 과정이다. 길이 바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길은 순례자의 여정을 생생하게 하는 힘이 있는 바 이 길의 주인이신 야훼와 그분의 은총을 마음에 오롯이 새기지 못한다면 순례자는 이 여정의 주인공이 자신인 양 착각하게 되고 여정의 경험들을 미화하게 된다. 주의할 일이다.

길은 낮설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 가운데서 우리러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동행을 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순례의 길이며 그분께서 나보다 더 내게 가까이 계신 분이시며 부르기도 전에 이미 오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된다. 하느님은 순례자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발을 붙드시는 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토록 위험한 한낮의 해와 시린 밤의 달도 결국은 그분의 피조물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러 찾던 하느님은 7절에 이르러 순례자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

아울러 오경웅은 이러한 하느님은 자애로운 어머니보다 더 자애로우신 분이라며 개인적 진술을 끼워 넣는다. 오경웅은 그의 자서전 『동서의 피안』에서 자신을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열병을 스무날 넘게 간호하다 끝내 그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사랑을 서술한 적이 있다. 그 사랑을 기억하노라면 떠난 지 스무 해가 넘어서도 통곡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절절한 사랑보다 더한 것이 하느님의 자비라고 고백한다.

1절에서 산을 청산靑山이라 하였다. 유교적 사유에서 머물고 싶은 이상향을 뜻한다.

7절의 행장行藏의 나아감과 간직함은 『논어』 「술이」 편에 공자가 제자 안연에게 ‘쓰임을 받으면 도를 행하고 쓰임 받지 못하면 도를 간직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너 안연과 나뿐이구나.’라고 하였다.

단순한 출입의 문제만이 아니라 때를 얻어 삶이 잘 풀리든 그렇지 못하고 막혀서 침잠할 때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느님과 동행한다는 고백은 시편 23편에도 나오는 구절이다.

- 오경웅 지음, 송대선 해설, 「시편사색」 (꽃자리) 중에서
(※시편 121편은 히브리인들이 새해를 맞으며 암송하는 시편 중 하나다.)

초심

백무산

눈 오는 아침은/ 설날만 같아라

새 신 신고 새 옷 입고/ 떠나나서던 눈길
어둠 속 앞서가던 아버지 흰/ 두루막 자락 놓칠세라
종종걸음치던 다섯 살/ 첫길 가던 새벽처럼

눈 오는 아침은/ 첫날만 같아라

눈에 젖은 대청마루/ 맨발로 나와
찬바람 깔고 앉으니/ 가부좌가 아니라도
살아온 흔적도 세월도/ 흰 눈송이 위에 내리는
흰 눈송이 같은데

투둑, 이마를 치는/ 눈송이 몇
몸을 깨우는 천둥소리

아, 마음도 없는데/ 몸 홀로 일어나네
몸도 없는데/ 마음 홀로 일어나네

천지사방 내리는 저 눈송이들은
누가 설하는 무량법문인가

눈 오는 아침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첫날만 같아라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새롬	권두리	권 순	김동영	김성아	임세진	김수경	김시영	김애순	김영락	김용길
최영혜	김은영	변중복	김일재	이재필	김재환	김진선	김중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김중수	이순정	김중현	성귀옥	김지연	김지은	김지현	김지훈	김진우	임미진	김충실
조아라	김형옥	김혜영	김훈동	유경순	문금석	문희영	박미희	박병구	박석희	조향미
박옥순	박유경	김성우	박인혁	고숙이	박준민	최광희	박준희	이기분	박창운	허정운
방종미	서정순	서혜원	설규범	손연우	신영신	신유식	심재남	김성희	심창현	안홍숙
홍순구	양정규	오미숙	오유경	김현동	오은영	오재형	임고운	오진훈	노순옥	오현우
유수진	윤미경	윤선호	임선아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부곤	이순이	이영하	이유진a
이주경	안상숙	이준림	이증자	이지형	이치림	강상연	임성택	홍순위	임승동	백혜숙
임주빈	최현옥	임찬양	임형옥	장기환	장원호	박성희	정성훈	정연경	정원석	김현영
정윤환	정효진	조경환	조관행	홍선희	조미선	조순덕	최미자	최영민	이상미	최옥자
최혜정	하상애	하현철	최성애	한상균	한완식	임정자	한훈식			

감사헌금

김기철	김유석	김윤옥	김일재	김정화	나영란	박병구	김인순	박수용	이상도	이은옥
이치림	강상연	이현정	임종수	장연수	함정희					

녹색꿈헌금

김세은	김영빈	김호연	김주미	이인웅	이태석
-----	-----	-----	-----	-----	-----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쉼)
1청년부모임	13:30	지하다목적실			
2청년부예배	13:30	청년회실			

교회소식

1. 설연휴 : 오늘 점심식사는 설 연휴 관계로 없습니다.
2.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오늘 12:2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3. 모집 : 2부 찬양대에서 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신앙실천 : 가족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서로 배려합시다. 설거지 함께 하기, 곤란한 질문 삼가기 등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고전 16:13-18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김재홍
		2부 김기석	김기석	한성건	이재훈
2월	1부 영접위원	김정우	헌금위원	이부용	
	2부 영접위원	하현철 박재영	한상균 이현순	김해선 최은미	
	2부 헌금위원	곽권희 황현성			
식당봉사	오늘	없음(설 연휴)			
	다음주	이소애 이소혜 박유경 김지현 김해선 남인자 강세기 김성우			
설거지봉사	없음(설 연휴)(오늘) 5여선교회(다음주) 커피봉사 없음(설 연휴)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